

보도시점 2026. 8. 18.(화) 석간 < 2026. 8. 18.(화) 10:00 >

중기부, 경남지역 수해 전통시장 긴급 점검

- 경남 지역 수해 전통시장 피해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 상인 애로사항 청취하고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한 시설복구·금융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8월 18일(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고현시장, 통영 서호시장을 방문하여 수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남지역 17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 유출로 점포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피해현황과 복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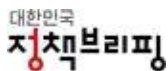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추가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침수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시설 복구 지원*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재해확인서 발급 등 지원), 피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 전기·가스시설 지원절차를 간소화(2.5개월 → 10일 이내)하고, 전기 및 가스 설비 등 신속 지원

중기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 점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수해 취약 시장을 확인 후, 여름철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을 찾은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신 전통시장 상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 빨리 생업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성향용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류희열	(044-204-7881)
		담당자	주무관	이재호	(044-204-7898)



□ **시설 복구 지원**

- (안전 점검)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에 긴급 점검 요청
- (전기·가스시설 복구) 복구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평시 2.5개월 → 수해시 10일) 교체를 지원

□ **경영안정 지원**

- (원스톱 지원 센터) 긴급지원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인원 구성)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점), 기초 지방정부
 - (상담내용) 재해확인서 현장에서 신속 발급 지원, 금융지원(긴급 경영안정자금, 재해소상공인 특례 보증, 만기연장 등) 신청 지원
- (금융지원) 설비 보수, 판매상품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지자체 발급)
 - (긴급 경영안정자금) 요식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연 20%, 2년거치 3년 상환) 융자
 - (만기 연장)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 1년 연장
 -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재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까지 특례 보증 실시(보증률 100%, 보증료 연 0.5%)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고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상인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또는 공제금 복리지급